

전북도, 심심산골 나물산업 첫 주자 ‘진안 머위나물’ 선정

각 시군 대표나물 사업화 추진
2028년까지 288억 투자 예정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모색

전북도는 5일 진안군의 머위나물을 심심산골 나물산업 육성사업의 첫 주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심심산골 나물산업 육성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심사 평가회가 최근 도청에서 개최됐다.

이날 선정심사에서는 6차산업, 가공·유통, 영양·소재, 기능성 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된 8명의 심사위원의 평가와 컨설팅이 진행됐다.

도는 세부 사업계획과 성과목표의 적정성, 나물 산업화 가능성, 재정투자 계획 등의 세부평가를 통해 2021년 사업 대상자를 진안군의 ‘머위’ 나물로 선정했다.

진안군의 머위나물은 고원지대의 친환경 이미지를 바탕으로, 동향면의 머위 작목반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 생산



진안군 머위나물.

/진안군

체계 조성, 지역 농산물가공업체를 활용한 6차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진안 농협조공법인 등을 통한 유통체계 구축, 능길머위특화마을 지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한편 이날 심사평가와 더불어 각 분야별(생산, 가공, 유통, 마을조성 등) 컨설팅을 통한 세부 실행단계 피드백으로 더욱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전북도는 진안군의 머위나물을 시작

으로 각 시군의 지역적 자원과 농가 수요 등 종합적인 환경을 고려한 대표나물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시군당 3년 동안 20억 원, 14개 시군에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총 8년간 288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올해와 내년 1개 시군에 1품목씩 육성하는 시범사업 실시 후, 2023년 이후부터는 사업량을 확대하여 3개 시군씩 추진한다.

최종적으로 14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1시군 1나물 중점육성을 위한 나물

생산기반 조성, 가공시설 구축, 유통·홍보마케팅 등에 대한 포괄적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도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나물을 생산, 활용해 가공과 유통 등의 농촌융복합산업과도 연계해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심심산골 나물산업 통합브랜드 및 유통플랫폼을 구축하는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을 전담관리 기관으로 지정·운영해 홍보와 마케팅 지원으로 전북 나물산업의 성장 발판구축을 위한 육성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생산하는 농가와 가공업체, 유통조직 등 사업 참여 주체의 성장으로 지역경제가 활로를 찾고, 더 나아가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6차산업으로 정착하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전북=강성대 기자 ksd1008@metroseoul.co.kr



신안군에 위치한 영화 '자산어보' 촬영지

영화 '자산어보' 속으로 신안군, 언택트관광 각광

최근 개봉한 영화 자산어보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촬영지인 신안군이 주목 받고 있다.

영화자산어보는 신유박해로 흑산도에 유배된 정약전 선생이 바다 생물에 매료되어 자산어보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청년 어부 창대와 서로의 스승이자 벗이 되어가는 두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감독은 사도, 동주 등을 연출한 이준익 감독이, 정약전 선생역으로는 배우 설경구, 창대 역으로는 변요한이 출연했다.

주요 촬영지인 도초도는 수국의 섬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70년 이상이 된 팽나무 명품 숲길이 조성되어 있어 언택트 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다.

/신안(전남)=안행주 기자 abcd@

영덕군의 이상한 ‘공유수면’ 관리

관광객 위한 ‘어촌안내소’, 실상은 개인 사업지 취급

공적 목적 관리사무소 개인 점유
영덕군 “법 위반 아니야 문제없다”

영덕군이 국가 재산을 사적으로 영리 추구하는 것을 묵인해 논란을 빚고 있다.

영덕군은 지난 2003년 2월 3일 공유수면을 공적용도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으로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영해면 대진리 412-22번지 인접 공유수면에 1층 경량철골구조 관리사무소(99.24㎡)를 지었다. 이 관리사무소(주소: 영덕대계로 2794)는 ‘어촌관광마을 안내소’라는 사용목적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는 공적용도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물을 개인사업자가 이용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 이 건축물을 검색해보면 “어촌관광마을안내소”라는 간판 대신 “대진스쿠버”로 표기되어 있다. 좀 더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업자주소는 이곳이 아님이 확인됐다. 또한 영덕대

계로 2794번지에 개인사업자가 불법건축물을 지어 점유를 하며 관광객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영덕군에 질의를 했으나 영덕군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4항에서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용·사용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공유수면 관리

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조 8항에선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영덕군이 공적용도로 허가를 받은 후 사적용도로 사용하게 했다면 영덕군에게 책임의 소지가 있다. 또한 이 공간에 개인사업자가 입주해서 사적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관련업체와의 연관성도 조사해 봐야 할 것이다.

/영덕(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12@

유진섭 정읍시장, 저출산 극복 챌린지 참여 부산시, 수리조선산업 고도화 78억 투입

“가족 친화 도시 만들기 위해 최선을”

유진섭 정읍시장이 최근 ‘저출산 극복 함께해요! 범국민 포(4)합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저출산이 가져올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하자는 취지로 전개되고 있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함께’라는 용어가 4번 반복된다는 의미의 범국민 포(4)합 릴레이 챌린지로 지난 2월 충청남도에서 처음 시작됐다.

김정섭 공주시장의 지명을 받은 유진섭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인 연대가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의 부담



정읍시는 5일 유진섭 시장이 저출산 극복 범국민 릴레이 챌린지 동참했다고 밝혔다.

을 줄여주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가족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송도근 사천시시장과 김철수 속초시장장을 지목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함께 해주기를 요청했다.

/정읍(전북)=강성대 기자

산업부 지원기반 구축사업 선정

부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1년도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 가운데 수리조선 분야 지원사업인 ‘스마트 수리조선산업 지원기반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부산시는 최근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등으로 수리조선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커지면서 디지털 정보시스템 부재, 인력 고령화, 설계역량 부족 등의 극복이 필요한 시점에 수리조선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총사업비 77억 6000만원(국비 52억 8000만원, 시비 24억 8000만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수리조선산업은 선박의 개조, 보수, 정비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선박의 외부수리, 내부수리, 개조, 검사 등을 중심으로 해운, 선박관리, 선용품, 조선

기자재, 기계 및 철강, 전기·전자산업 등 여러 산업 분야와 연계돼 있어 직·간접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부산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중소조선연구원·한국선급·한국선박수리협동조합이 참여기관 구성됐으며 지난 3월 사업제안서를 제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근 최종 선정됐다.

부산시는 사업 참여기관과 더불어 지역 유관기관인 한국플랜트엔지니어링 협동조합, 부산항만공사, 지역대학(한국해양대학교·부경대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스마트 수리조선산업 지원 플랫폼 구축 ▲친환경 블라스팅 및 역설계 등 첨단장비 확충, 검사·인증 등 기술지원 ▲청년 유입을 위한 수리조선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규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남원시

춘향골 복숭아 꽃 ‘활짝’

남원시는 5일 전국 최고의 품질로 알려져 있는 남원 춘향골 복숭아가 울거울 기습 한파를 이겨내고 따뜻한 날씨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교해 일주일 가량 빨리 개화해 풍년을 예고하고 있다.

꽃과 과실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복숭아는 4월을 기점으로 춘향골 지역에 복숭아 개화가 절정을 이뤄 많은 상춘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남원 춘향골 복숭아는 아름다운 복사꽃의 볼거리를 시작으로 초여름에는 탐스럽게 익어가는 복숭아 체험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춘향골 남원의 관광명소의 한축이 되고 있다.

/남원(전북)=강성대 기자

영주시

안전재난문자 빈도 조절

경북 영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재난문자운영기준 강화에 따라 ‘코로나19’와 관련한 안전재난문자 발송을 대폭 줄인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관심도나 긴급성이 적은 내용의 과다 송출로 인한 시민 피로도가 증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재난문자 송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송출금지사항 지정에 따라 안전재난문자 송출을 금지한다.

안전재난문자 송출금지 주요사항은 확진자 발생과 관련된 정보 및 지자체 조치계획 안내 사항인 확진자 단순발생, 역학조사 중, 동선 없음, 확진자 미발생, 검사결과 전원 음성, 소독 예정·완료 안내문자이다.

/영주(경북)=김귀열 기자